

하
스

이

슈

약물남용! 나는 예외인가?

한양대 / 정 문 희



1. 글머리에

밀가루가 담긴 가짜 약으로 거뜨해지시던 할머니의 기억으로부터, 내가 먹다 남은 약을 동생에게 먹이던 어머니의 행동에서부터, 소아과에서 아이에게 주사를 놓아주지 않으면 못내 서운한 감이 들던 내가 이제는 기운이 없다는 어른께 영양제라도 맞아보시라고 권하기도 하고, 드링크제를 서비스하는 약국을 더 선호한다. 심지어 외국에라도 다녀올 때는 한국에도 있으련만 약이 된다는 알 수 없는 선물을 건네는 등 참으로 우리 내 생활에는 아무렇지 않게 약이 범람한다.

이 모두 약이 우리 몸에 이롭거나 도움이 된다는 자기 판단에 근거하리라. 한 상 차려 놓고 '맛있게 드세요'보다 '많이 드세요'라

고 으레 말하는 것처럼 약도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인식에 젖어 사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식사처럼 조절하거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복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같은 디자인이지만 색에 따라, 입는 옷이 어울리고 안 어울릴 수 있듯이 같은 약이라도 누가 쓰는가에 따라 다르고 또는 원하는 약효가 상당기간 후에 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도 무심하지 않는가?

2. 행태에 따라 다른 호칭

사람들이 흔히 쓰는 '약'이란 단어는 전문분야에서 '약이 되는 물질'이라는 의미로 약물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용하는 사람의

행태에 따라서 문제의 범주가 달라진다.

‘약물사용’이란 말이 있다. 이는 약물을 쓰는 횟수나 양과는 관계없이 단지 치료효과가 있는 약물을 쓴 결과만을 말한다.

‘약물오용’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안내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위험소인이 크게 숨어 있는 용량이나 상황에서 복용할 때 쓰인다. 따라서 치료적으로 썼는지와는 별도로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둔다.

‘약물의존’이란 말이 있다. 보통 ‘약물중독’이란 말로도 부른다. 약물을 사용한 용도가 불안을 없애려하거나 향락을 쫓아서 사용한 까닭에,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해 생리 기능에 변화가 온 상태이다.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거나, 용량을 더욱 많이 써야 할 정도로 내성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직업·정신적·신체적 문제가 동반된다.

‘약물남용’이란 말도 있다. 이 말은 기분 전환, 쾌락추구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으로 약물을 쓰기 때문에 본래 지니고 있는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추해보면, 보통 사람들이 ‘약’이란 단어를 쓰는 개념에는 ‘사용’만 있지 ‘오용, 남용, 의존(중독)’의 개념이 무시되어 있는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후자의 개념에서 비롯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천명하는 정의를 빌어 약물을 이해한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사용하는 약

물의 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이 약물이다. 즉 약, 또는 약물이란 단순한 이 단어에 1) 처방이 합법이나 아니냐, 2) 사용 동기나 목적이 도덕적이냐 아니냐, 3) 신체·정신적 결과가 의학적이냐 아니냐, 4) 타인에 해로운 효과는 사회적 책임이나 아니냐 등의 다양한 관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데 쓰여 신체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지만 용도에 따라 그 효과나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약물이라 칭한다. 그 쓰임새의 흐름으로 보아 마약류 등의 물질을 스스로 복용하는 것을 ‘약물’이라 일컫는 편이어서, 건강 확보를 제일의 가치로 하는 우리 내 ‘약’의 개념하고 다른 셈이다.

3. 남용하는 흔한 이유라면?

앞에서 언급한 약물의 종류는 1) 카페인, 니코틴, 암페타민(필로폰), 코카인 등의 중추신경흥분제가 있고, 2) 아편 몰핀 헤로인 같은 마약, 술, 수면제, 진정제, 본드흡입제 등의 중추신경억제제가 있다. 3) 환각제로 대마 엘에스디 등과 같이 중추신경에 흥분과 억제를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분류, 열거할 수 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약물을 남용하게 하는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배경들을 다음에 소개한다.

1) 바라는 목적과 이를 이루고자 하는 수단과의 모순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이 욕

구좌절이 사회규범에서 벗어날 대안으로 약물을 선택한다. 누구나에게 발생할 수 있다. →〈압력이론〉

2) 사회적 유대와의 결속력이 약할 때 사람이 지닌 일탈성향이 행동으로 돌출되어 약물을 선택한다. 행동을 규제하여 약물에 대한 자연적 충동을 억제하는 사회적 통제력이 필요하다. →〈통제이론〉

3) 집단에서 받는 격려와 보상이 처벌이나 대가를 크게 앞선다는 것을 관찰하고 배워 약물을 선택한다. 다양한 사회화의 결과다. →〈사회학습이론〉

이러한 약물남용이 지금의 우리 사회에 문제로 부상하는 이유는 특별한 지역이나 특정한 계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점에 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를 목적으로 각성제를 사용하거나, 운전기사가 피로해소를 목적으로 드링크제를 상용한다거나, 유기용제 취급근로자가 머리를 맑게 하고자 두통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쉽게 구하고 안심하고 사용하는 습관에서도 약물남용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단히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두통약, 드링크,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제산제 등은 행동반경 5분 이내에 있는 약국에서 스스로 결정하며 구매하며, 대체로 자가 진단을 하는 사람일수록 약물사용 종류가 많고 주관적인 건강신념에 따라 구매하는 행태를 보이므로

약물 오용, 남용 및 의존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오국진, 1994; 조원순, 1995; 임종규, 1997; 노재규, 1997; 김영임 등, 2000).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비처방의약품(또는 일반의약품, 매약)이라 말한다. 상업적으로 제조된 약이기 때문에 남용가능성이 있는 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약국 대부분은 낱알 판매를 거의 하지 않으며, 절대량을 내수로 충당하는 시판 의약품은 소비자 구매행동분석을 홍보전략으로 이용하는 바, 마치 건강보조식품 또는 영양식품을 치료약으로 간주하거나 술을 보약으로 되새기는 느낌 그대로 수용할 우려가 적지 않다.

4. 표시 글을 읽고 설명을 듣는다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건강증진활동에는 이런 류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또는 건강에 이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포장에 표시되는 약물의 용도·용법·부작용·주의사항 등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지만 그나마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다면 약물에 대한 올바르게 못한 지식이나 과신이 오용, 남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7월 1일에 실시한 의약분업은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3배 이상 높

고, 항생제의 오남용은 의사 및 약사의 행태에 근거한다는 지적이 밀받침되어 실시된 관계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데 좋은 장치이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제도로서는 아직 미비하다.

예컨대, 드링크제에는 카페인 들어있고, 진통제에는 간독성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게보린 등), 또는 골수억제 위험성이 있는 dimethylaminoethanol bitartrate(펜잘, 아파간 등) 등이 함유되어 있고(조수진, 2000; Silberstein 등, 1996; 조수진, 2000; Leonard, 2001), 사용할 때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용도라든가, 한 가지 이상의 활성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던가, 다른 약이나 식품 또는 신체상황간 상호작용이라든가 등의 지식이 크게 부족하여 증상완화를 위해 쓰는 약이, 일시적 호전을 가져오지만 방어기전을 무능하게도 한다는 '해독'의 인식에 둔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약류 등의 문제에 밀려 이상과 같은 보편적인 약물 사용은 문제의 심각성이 가려져 있을지 모른다.

5. 맺는 말

이제 처방 없이 사는 약들은 처방전을 가지고 사는 약과 구별하여 구입하면서, 종전보다 더 무분별하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물오남용의 관점에서 기업이 대한 규제는 정부가 건강증진정책 차원에서 안내할 일이지만, 올바르게 선택해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은 결국 내 몫이다.

안내하고 있는 사항을 읽어보고, 설명에 귀 기울이고, 주의사항이나 경고에 무심하지 않고, 과민성에 대해 이해하는 일은 결국 내 선택과 책임이다. 이 소임이야말로 약이 내 몸의 자연치유능력을 도울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 김영임, 지주옥, 윤순녕, 정혜선, 최숙자, 이정옥, 이현정(2000). 중소기업 사업장의 의약품 관리실태 및 의약품업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1(2), 513-525.
- 노재규, 김지수, 안윤옥(1997). 국내 편두통의 역학 및 임상 특성연구. 대한신경과학회지, 15, 1-18.
- 오국진(1994). 약국이용자의 약물 사용에 관한 행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종구(1997). 제산제 구매자의 의사결정특성과 영향요인.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수진(2000). 경두통 치료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의 현황. 두통학회지, 1(1), 33-37.
- 조원순(1995). 산업장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약물사용. 한국 보건간호학회지, 9(2), 17-32.
- Bolesta S and Haber SL(2002). Hepatotoxicity associated with chronic acetaminophen administration in patients without risk factors. The annals of pharmacotherapy, 36(2), 331-333.
- Leonard, L.(2001). Drug information handbook, Americ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20-21.
- Silberstein SD, Lipton RB, Stephen, Richard, Martin Sliwinski(1996). Classification of daily headache and near-daily headaches: Field trial of revised IHS criteria. Headache, 34, 1-7. 